

[re] 진로와 붓을 받은 꿈의 자료있나요?

이 붓을 잡으라

어떻게.

무엇을 하며,

인생을 살까? 하고

진로 때문에 삼년이나 무릎을 꿇고

하늘에게 물어보았을때,

그 어느 날 밤 꿈속에

나를 찾아오신 꿈손님 있었지

세마포 빛난 옷, 금띠를 띠고

그는 내 방에 들이닥치셨지-1294.

나도 놀랐지만 그도 놀랐을꺼야.

왜?

아마 소식을 들었겠지만

나 하고 사는 꼴을 보시고

그렇게까지 불행하게 하고 사람인 줄을

미처 몰랐을테니까.

하지만 그는 그날 밤

나에게 조금도 놀란 표정이 없었어.

아마 나 몰래, 나 안보이게

자주 와 보았던 모양이야.

그러니까 그때 그 꼴을 보고도

놀라지도 않고, 표정도 변하지 않았지.

그 분이 나에게 물으시기를,

[인생 진로에 대해 하늘 앞에 이야기 했다구?]

나는 대답했지,

[예, 나 좀 부탁해요] 라고

그때 그분 나를 데리고

날 취직시켜 준다고

제주도부터 온 삼천리 강산을 다 누비고 다녔지.

그러나 나는

취직도 싫다,

오직 당신만을 위해 평생 따라다니면서

신들메라도 감당하고

목 탈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
심부름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.
하지만 그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짐작게 거절했지.
그렇지만 나는
그래도 따라다니고 싶다고 했지
허락만 해달라고 목을 놓아 졸라댔었지.

그러자
홀연히 그는
논바닥 만큼이나 큰 백지위에 서서
글을 쓰고 있었지.
그리고 나는 구경을 하고 있었지,
그러다 나 역시 논바닥 만큼이나 큰
백지위에 서 있게 되었지
그분이 말씀하시길
[이 붓을 잡으라] 하셨지,
나는 놀라서 쳐다보았지
그는 세마포 옷 안주머니에서
빛나는 큰 붓 한자루를 내게 던졌지.
나는 엉겁결에
날아오는 크고도 큰 붓을 잡다가
너무 커서 놓칠뻔 했지.

그분이 말씀하시길
[나와 같이 쓰고 그리도록 하라]
나는 열심히 그렸지.
열심히 그리다가 또 쳐다보니
백지위에 글만 남겨놓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.
깜짝 놀라 건너편을 보니
지는 해와 함께 그분이 가고 있었지.
나는 소리쳤지.
[주여, 예수님이여!
어찌 나 홀로 두고 가시옵니까?]
그는 나를 펴다보면서 아쉬움 속에 말씀하셨지
[내, 네게 부탁한다.
오직 네게 이 모든 것을 남기고 간다.
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
이 모든 것을 다 행하도록 하라.
너만 믿는다] 하시며 산으로 오르셨지.
그 산으로 오르면서
결국은 공중으로 올라가시고

그도 아쉬운지
끝까지 뒷모습을 보이시면서 사라지셨지.

그 때 준 붓
나는 처음에는 몰라서
붓글씨나 써서 팔아먹고 사는 줄 알았지.
그러나 너무 우습고 너무 기구절창하게 써서
그 아무도 내 글을 사 가는 자 없었지.
하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니
그것은 사명의 붓이요, 이 시대의 붓
바로 혀끝, 말끝, 펜끝, 그리고 행동의 붓이었지.

나는 그 붓이 다 닳도록
이 몸이 다하도록
이 붓을 놓지 않으려다
하늘말, 내 말, 세상 말 다 넣고
그아무도 서운치 않게
이 건필(健筆)을 온 세상에 전하리.

1990년 12월 1일

◆ 꿈은 자기가 현실에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여.
꿈 - 비 오면 게으른 것인데
게으르면 석가래에 비가 새는 것으로 보여준다.
할 일을 못하고 심란하면 게으르다.
일 안하면 태산같이 밀린다.